

석류의 땅

6/24 월요일

아침의 누림

신 8:8

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골 1:27-28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골 2:9

9 신격의 모든 총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 4:3, 13

3 그대의 입술은 진홍색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러우며 너울 뒤 그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오.

13 그대의 새싹들은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고벨화와 나드

익은 석류를 볼 때, 여러분은 즉시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이 땅에서 온갖 압력과 박해와 고통과 갈등을 겪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 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하게 함을 깨달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접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을 느낄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6 장, 94-9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제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이 자랄 것이며, 심지어 생명의 풍성도 자랄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기를 위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우리가 철학과 윤리와 금욕주의와 규례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생명과 빛이 충만한 사랑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을 소유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과 빛과 생명을 소유한다.

이 왕국을 보여 주는 예시를 드는 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에 대해 충분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의 체험을 생각해 보라.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달콤한 느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느낌은 주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이 신성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신성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통제, 혹은 어떤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더 많이 말할수록 우리의 자유는 줄어들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러한 통치와 제한을 감지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 내적인 제한도 느끼지 못한 채 사람들을 모질게 대할 수도 있었고, 세상적인 오락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 이러한 통치는 가혹하지 않다. 오히려 이 통치는 달콤하고 유쾌하다. ...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유쾌한 방식으로 통치하신 결과, 우리는 헛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분을 언짢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의 달콤함 가운데 우리는 극도로 통치와 제한을 받는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 중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만든 어떤 형태의 통제, 즉 자아가 정하고 집행하는 어떤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통제는 어둠의 권세이다. 이러한 권세 아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 빛도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 마땅히 떠오르는 말도 없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즉 우리의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선호와 행실에서 구출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어떤 방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게 된다. 우리는 사실상 어둠의 권세와 통제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 살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누린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45-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6 장

6/25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7-19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골 3:4, 3:10-11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कु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아에 관심을 두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아보다 더 좋은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골로새서에 제시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광대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전 존재를 집중시킬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고 점유하실 것이다. 우리는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유대교나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광활하시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점유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타고난 인간 생명의 모든 방면을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48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는 놀라우시고 광대하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제시한다. 일단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전 존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 매혹될 것이고, 그리스도께 소유되고 그분으로 점유될 것이다. 그러면 점차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의를 점유하시고 타고난 인간 생명의 모든 요소를 대치하실 것이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친절과 겸손과 부모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미덕은 기껏해야 광을 낸 구리에 비유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금이다. 그분의 가치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뛰어나다. 모든 것을 능가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할수록,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선포할 수 있다. ...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점유하시며 채우시는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스며들고 적셔지고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일 것이다. ...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정도로 주님께 절대적이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자신을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말라.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도록 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야생올리브나무의 가지가 참올리브나무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으로 예시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참올리브나무이시고, 우리는 야생올리브나무의 가지들이다. 먼저 우리는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리고, 그 다음 참올리브나무의 잘린 자리에 놓인다. 그런 다음 야생올리브나무의 가지는 참올리브나무에 고정된다. 이것이 접붙임이다. 접붙임의 과정을 통해 참올리브나무 안에 있는 생명 진액이 야생올리브나무의 가지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에 스며들고, 그것을 적시며, 그것을 채운다. 결국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가지들이다. 만일 우리가 참올리브나무에서 나온 생명 진액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며 채워진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삶은 참올리브나무이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지가 이 단계에 이르면, 그 가지는 참올리브나무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예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로 점유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 장 28 절에 있는 ‘충분히 성장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베소서 4 장 13 절에서 쓰인 것과 같은 단어이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다. 결국 이 성숙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몸이다. 우리 모두는 자라고 충분히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성장한 한 단체적인 사람 곧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몸을 얻으시도록 해야 한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482-483, 485-4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9; 진리 공과, 개정판, 3 단계, 1 권, 4 과

6/26 수요일

아침의 누림

출 28:33-34

33 그 겹옷의 옷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34 그 겹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를 달아라.

왕상 7:18-20

18 그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다. 그물 주위에 있는 석류 두 줄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덮었다. 그리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19 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직경이 사 규빗이었다.

20 두 기둥의 기둥머리는 그물 옆의 불룩한 부분 위 가까운 곳에 놓였다. 그리고 석류 이백 개가 줄지어 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 장 33 절은 석류들과 방울들에 대해 말하고, 34 절은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에 대해 말한다. 의복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 석류들은 방울들 앞에 왔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방울들이 석류들보다 앞서 나온다.

옷단은 충만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이다. 그러므로 옷단에 달린 석류들과 방울들은 틀림없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석류들은 인성을 상징하는 아마실로 만들어졌고, 방울들은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인성과 신성이 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0, 14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씨가 가득한 익은 석류를 본다면, 여러분은 석류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석류는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한다. 교회는 그 인성에 있어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실로 만들어진 석류의 의미이다.

생명의 충만은 교회의 인성 안에서 표현되지만, 경고의 음성은 금방울에 의해 상징된 것처럼 교회의 신성 안에서 표현된다. 교회의 합당한 말함은 항상 교회의 신성에서부터 나온다. ... 이러한 소리는 유쾌하고 부드러운데, 그 이유는 소리가 쇠방울이 아닌 금방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생활 안에서 보낸 시간 내내, 어린 형제자매들의 말을 통하여 수차례 경고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 그것은 부주의하게 행하지 말라고 내게 경고하는 작은 금방울의 소리와 같았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성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금방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 즉 교회의 신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어느 정도의 신성이 있다. 이러한 신성의 요소로부터 작은 크기의 소리, 마치 작은 방울의 울림과 같은 소리가 나온다. ... 방울들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지 생명의 충만의 표현이 먼저 나오는지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둘 다 그리스도의 긴 옷자락인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통제 아래 있지 않다. ...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석류들과 방울들에 의해 통제받는다. ... 석류들과 방울들은 합당한 교회생활의 표시이다.

석류들과 방울들은 방울 하나 그리고 석류 하나, 이렇게 번갈아 달렸다(출 28:34). 이것은 신성한 목소리와 신성한 생명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교회생활 안에 석류들 없이 방울들만 있다면, 금방울 소리 대신 한담과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석류들이 방울들과 번갈아 달려 있다면, 한담과 비판은 사라지고 합당하고 신성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하고 결국 생명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석류들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생명의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한담과 비판은 작은 금방울의 합당한 소리로 대치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형제의 체험이 된다면, 그는 집회에 와서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문제에 관하여 그를 다루셨는지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것은 석류들과 번갈아 달려 있는 금방울들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체험을 통해 ... 우리는 석류들과 방울들이 달려 있는 긴 겔옷의 예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 먼저 우리는 석류들과 방울들이 긴 겔옷의 옷단에 달린 것을 본다. 이것은 그것들이 교회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신성한 기원 곧 신성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세마포, 곧 인성 안에서 표현된 생명의 총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성 안에서 표현된 생명의 아름다움과 금방울에서 들리는 신성한 소리를 갖는다. 이러한 것들이 합당한 교회생활의 표시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0, 1474-147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0

6/27 목요일

아침의 누림

렘 52:23

23 밖으로 향한 것은 구십육 개의 석류였는데, 그물에 둘러 있는 석류는 모두 백 개였다.

요 7:38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마 13:8

8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롬 6:4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딤후 2:20-22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열왕기상 7장 20 절은 “두 기둥의 기둥머리는 그물 옆의 불룩한 부분 위 가까운 곳에 놓였다. 그리고 석류 이백 개가 줄지어 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이백 개의 석류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각 기둥머리 둘레에는 돌출부, 즉 불룩한 부분이 있었다. 각 기둥머리 위의 돌출된 부분을 각각 백 개의 석류로 이루어진 두 개의 줄이 두르고 있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이 백 배로 표현된 것의 두 배가 있음을 가리킨다.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매일 책임을 짚어지는 장로들을 접촉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석류들, 즉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3, 1137-113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역대기하 4 장 13 절은 ... 두 그물에 사백 개의 석류가 있었고, 석류들은 각 그물에 두 줄로 달려서 기둥 위에 있는 기둥머리인 공 두 개를 감싸고 있었다고 말한다. ... 주 예수님은 우리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13:8). 백 배의 증가는 가장 큰 증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백 배로 표현할 수 있다. ... 생명의 풍성이 백 배로 표현되는 것은 숫자 4 로 상징된 피조물에게 달려 있다. 사백 개의 석류가 각각 두 기둥 위에 두 줄씩 배열되어 있었다는 것은 증거를 가리킨다. 우리는 강해야 하는데,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 증거를 지니는 것에서도 강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사백 배로 체험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백 개의 석류 중 구십육 개는 대기를 향해 드러나 있었다(렘 52:23). ... 그리고 네 개는 덮여 있었다. ... 숫자 96은 12에 8을 곱하여 이루어진다. 숫자 12는 영원한 완성을 상징하고,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하며, 공기는 그 영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풍성의 표현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부활 안에 있으며, 그 영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생명의 본성과 분위기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생명의 풍성은 숫자 12, 즉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숫자 7,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부활의 신선함을 상징하는 숫자 8이지, 부활의 과정을 상징하는 숫자 3이 아니다. 여기서 그것은 부활의 과정이 아니라, 부활의 신선함과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다. 또한 그것은 분명히 그 영 안에 있는 문제이다. 구십육 개의 석류가 대기에 드러나 있었던 것은, 생명의 풍성의 표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기의 실제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 ... 우리가 표현한 생명의 풍성은 영원하고 부활의 신선함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영의 분위기 안에 있다. ... 죽음으로 가득한 상황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풍성의 표현으로 가득한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에 상쾌한 공기가 있음을 느낀다. 이것이 구십육 개의 석류가 대기를 향해 있다는 것의 의미이다.

백 개의 석류마다 네 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생명의 풍성의 표현은 영원하고 부활 안에 있으며 그 영 안에 있지만, 숫자 4로 상징된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반드시 감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존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숨겨져야 한다. ... 그리스도의 풍성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은 부활 안에 있고 그 영의 분위기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의 영원한 표현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자아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 '나'가 나타날 때마다, 큰 숫자 4는 그곳에 있지만 숫자 96은 사라질 것이다. 공기 대신 타고난 생명과 옛사람과 자아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 4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구십육 개의 석류, 곧 대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표현을 갖게 될 것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4, 1145, 1147-11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4

6/28 금요일

아침의 누림

아 4:3, 12-15 (13)

3 그대의 입술은 진홍색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러우며 너울 뒤 그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오.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3 그대의 새싹들은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고벨화와 나드

14 나드와 번홍화, 창포와 육계 온갖 유향나무, 몰약과 침향 온갖 최상의 향료가 여기 있다오.

15 그대는 동산들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

고후 9:8

8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 1:9-11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11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두 뺨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곳이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표현(즉,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행복 등)은 다 두 뺨을 통해 나타난다.

“너울 뒤 그대의 뺨은 / 석류 한쪽 같다오.” 이 석류는 온전한 석류가 아니라 쪼개져 열려 있는 것이다. ... 석류는 서로 가득하고, 각각의 씨는 그 안에 과즙이 흐르고 붉으며 달콤하고 아름답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주님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것에서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야 한다. ... 이것이 ‘너울 안에 감추어진 석류’에 담겨 있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뜻이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밝게 빛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행함은 우리 자신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표현되는 곳은 오직 주님 앞에서뿐이다. 믿는 이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영원한 원칙은 그들의 생활이 너울 안쪽과 닫힌 문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3 단락, 89-9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 4 장 12 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라고 말한다. …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지셨던 사상은 동산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즉시 동산을 만드신 것을 본다. 동산은 일반적인 부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식물을 위한 곳도 아니다. 더욱이 동산은 땅을 경작하는 밭도 아니다. 동산은 전적으로 아름다움과 누림을 위해 구상된 곳이다. … 그곳에서 관심의 초점은 꽃들이며, 꽃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시점에 이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으로 인해 만족하시는 것을 본다. 이 여인은 그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이다. 심지어 우물도 덮여 있고 샘도 봉해져 있다. 이것은 그녀가 전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기쁨만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동산이지만, 결코 누구나 출입하는 공원이 아니라 잠긴 동산이다. 따라서 아무나 자신의 눈으로 이 동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녀가 사랑하는 이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비록 이곳은 동산이지만, 결코 열매가 부족하지 않다(비교 아 4:13-14). 성경은 믿는 이들을 부를 때 아가에서 ‘새싹들(shoots)’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몇 차례 사용한다. … 이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죽음을 이기며, 부활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아론의 싹 난 막대기). 이러한 생명의 능력은 석류 과수원과 같다. 석류는 열매의 풍성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여인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열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에 나온 절들에서 우리는 석류가 그녀의 두 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석류는 단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다. 아가 4 장 13 절은 ‘석류 과수원’에 관해 말하는데, 이것은 이 동산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언급되는 꽃들과 식물들의 특색은 색깔이나 향기에 있다. 마지막에는 유향나무와 최상의 향료가 언급되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려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향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9:8, 골 1:9-11).

우물과 샘은 모두 동산 안에 있다(아 4:15). 에덴동산에는 동산을 적시는 네 줄기의 강이 있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한 줄기로 흐른다. 새 예루살렘은 성이자 동산이며, 그 안에 흐르는 물은 동산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동산은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이 사역의 근원은 동산이 아니다. 이 사역은 레바논의 높은 언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다면 성령의 강림도 없다(비교 요 16:7). …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적셔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결과이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3 단락, 105-1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3 단락

6/29 토요일

아침의 누림**벤후 1:3-8 (3, 5-7)**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롬 13:8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딤후 3:15-16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벤전 3:8

8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으로서, 구약에 나오는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예표되었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실질화되는 실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의 몫으로 할당해 주신 것이다. 생명은 안에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며, 경건은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생명은 내적인 에너지 곧 내적인 힘으로서 외적으로 경건을 산출하며, 이 경건은 영광으로 인도하고 또 영광을 가져온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통해 ...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된다. 우리는 믿음과 침례를 통해 이 연결 안으로 들어왔다(요 3:15, 갈 3:27, 마 28:19). 이 신성한 본성의 미덕(생명의 에너지)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이 되는 경건) 안으로 이끈다. (베드로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 15, 1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1 장 7 절에서 ... '형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단어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인데, 이 단어는 '-에 대해 애정을 갖다'를 뜻하는 '필레오(phileo)'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adelphos)'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 곧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랑이다.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벤전 2:17, 3:8, 갈 6:10),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언하며(요 13:34-35), 열매를 맺기 위하여(요 15:16-17)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더하여 공급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1 장 7 절의 '신성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단어는 '아가페(agape)'로서,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요일 4:8, 16). 이것은 '인간의 사랑(phileo)'보다 더 고귀한 것이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특징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것이다(고전 13 장, 롬 13:8-10, 갈 5:13-14). 이것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능력이 강하고 더 역량이 크다(마 5:44, 46). 만일 믿는 이가 신성한 생명으로 살고(벤후 1:3)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다면(4 절), 이 사랑으로 적셔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형제 사랑 안에서 발전되어 형제 사랑을 다스리고, 또 형제 사랑 안에서 흘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표현되실 것이다. ... 믿음은 생명의 씨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이 사랑은 생명의 씨가 완전히 발전한 열매(벤후 1:8)로 여겨질 수 있다.

베드로후서 1 장 5 절부터 7 절까지에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는 발전이 있다. 이 발전은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경건을 포함한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시작하여 미덕과 지식이라는 뿌리들과 자제의 줄기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가지들을 거쳐서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의 꽃과 열매에 이르는 충만한 발전과 성숙을 갖게 된다.

베드로후서 1 장 8 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하여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5 절부터 7 절까지에서 언급한,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의 모든 미덕을 가리킨다. 믿음과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사랑과 신성한 사랑이 모두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 오직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씨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씨 안에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꽃과 열매가 담겨 있다.

신성한 미덕들은 믿는 이들 안에 존재하고 믿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발전하고 성장할 때에 믿는 이들 안에서 계속해서 많아지고 증가한다. 모든 미덕들은 이미 그 씨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제 그것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씨 안에 있는 미덕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려면, 씨가 흠속에 심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자라야 한다.(베드로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6, 48-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 6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130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6장

찬송: 1161 (英) 주는 그의 사랑하는 자 (中:787)

6/30 주일

아침의 누림

1 주를 추구하는 이들 주가 변화시키네
기둥으로 침상으로 연과 면류관으로

(후렴)

그의 사랑하는 이는 그분의 기쁨이라
그 사랑에 사로잡혀 어여쁜 그 사랑에.

2 아직 그늘 남았으니 주는 만족 못하네
동산 자라 사랑스런 신부 얻기 원하네

3 석류나무 각종 과수 고벨화와 나도초
번홍화와 몰약 침향 이는 그의 즐거움

4 그는 그의 동산에 와 귀한 향품 모으며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 마셔

5 동산에서 공급하네 성을 건축할 재료
대적 모두 소멸될 때 주는 만족하시리

6 "내 사랑인 디르사야 고운 예루살렘아"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그가 이루어 아멘

요일 4:7-12,16, 19-21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뵈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Week 19)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7:1-1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33-34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Son Learning Obedience and Being Perfected to Become to All Those who Obey Him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Scripture: Heb. 5:1-9

Assigned Reading: *Authority and Submission*, ch. 5

Supplemental Reading: None

Questions:

1. Why did the Son need to learn obedience?
2. How did the Son learn obedience?
3. Why is obedience important to God?
4. What is the result of our obedience to God?